

최종보고서

「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」
정책성 등급조사 연구용역

2024. 8.

제 출 문

전라남도지사 귀하

본 보고서를 「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」 정책성 등
급조사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.

2024년 8월

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시욱

요약

요 약

I. 정책성 등급 조사의 개요

□ 주관기관인 전라남도가 제출한 『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세부계획서』(이하 『기본계획』)에 따르면 「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」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- 기간: 2025년 9월26일~10월26일(총 1달간)
- 장소: (주 행사장) 목포종합경기장, (부행사장) 문화예술회관
- 주관: 전라남도, 목포시
- 주무부처: 농림축산식품부
- 참가 규모: 40개국, 220만 명
- 주제: “남도미식이 잇는 세계 식문화, 지속가능의 가치”
- 소요예산: 169억 원(국비 51억 원, 지방비 69억 원, 민자 및 수익 49억 원)
- 주요 행사: 전시, 이벤트 및 행사, 학술대회, 체험 프로그램

□ 개최목적

- 한식 및 K-푸드의 미식 브랜드 육성
- 지역경제 발전 및 삶의 질 증대
- K-푸드 세계화 및 수출로 지역형 신성장 산업경쟁력 강화와 미식관광도시 조성
-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기반 강화 및 해외 협력/진출 채널 마련

□ 기대효과

- 전라남도 미식산업 클러스터 구축 활성화 및 글로벌 투자 유치 가능
- 국내 K-푸드 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수출입 증대 판로 개척으로 국가정책 부응
- 미래형 음식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 미식 도시 브랜드 강화
- 음식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범국민적 인식을 전환하고, 음식유관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창출
-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목포시 원도심의 도시재생 관광 자원화

□ 「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」의 주요 프로그램

- 주행사장인 목포종합운동장을 4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‘미식 주제전시/체험,’ ‘교육/체험,’ ‘산업/비즈니스 전시,’ ‘컨벤션(학술행사) 및 기타 이벤트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
- 부행사장인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컨벤션 학술대회, 사진수목전시회, 해양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

요약 표1. 주요 프로그램

구분	공간구상	주요 시설	주요 기능
주행사장 (목포종합운동장)	미식zone	남도미식관, 글로벌식문화관, 세계미식관, k-미식관	주제전시/체험
	산업zone	푸드테크관, 국제교류관, 지역상생관, 미식산업관	주제전시/체험
	체험zone	미식산업체험관, 미식문화체험관, 세계남도미식회관	교육/체험
	K-미식 투어 zone		체험/판매/휴식
부행사장	문화예술행사	컨벤션 학술대회, 사진수목 전시, 해양체험	교육/체험

주: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연계 개최
 자료: 『기본계획』

- 본 정책성 등급 조사는 전라남도가 2025년 9월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 「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」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 결과(점수)를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.

- 본 보고서는 기획재정부훈령에 의해 마련된 「국제행사관리지침」의 정책성 등급 조사 기준을 적용하여 국제행사의 정책성 평가를 수행하였음.
 - 「국제행사관리지침」에 따르면 정책성 등급 평가는 행사개최의 공익성(30점), 행사개최 계획의 우수성(30점), 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(20점),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(20점)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평가

 - 「국제행사관리지침」은 상기 4가지 평가기준을 더 구체화하여 총 17개의 세부 평가 기준을 제시함.

 - 지침의 17개 정책성 기준 항목에서 서로 다른 질문이 결합된 항목이 있음을 고려하여 총 21개 항목에 대해 평가함.

II. 행사의 성격 및 유사 행사 파악

1. 「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」의 성격과 특징

- 「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」는 「국제행사의 유치·개최 등에 관한 규정」의 국제행사 정의에 따라 국제행사로 분류될 수 있음.
- 「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」는 미식과 산업을 융합하는 산업화 기여 박람회로 준비 중인 국제행사로 볼 수 있음.
- 미식과 산업을 융합하는 산업화 기여 박람회로 준비하고 있으므로, 경제적/산업적 파급효과를 명확히 하고 박람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면 전라남도를 미식산업 발전의 본원으로 만들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
- 가장 최근에 소개된 미식의 개념은 단순히 지역사회의 먹거리, 사람, 문화 차원을 넘어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
- 미식 산업화를 위한 범위(농업, 식품, 외식, 관광, 한류콘텐츠, 환경 등)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과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두면서 행사를 준비할 것으로 보임.
- 전라남도의 식품산업이 타산업과 가치사슬로 연계되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
- 남도 음식의 전통성과 역사성, 세계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전라남도가 본 박람회를 통해 한국 미식문화의 본류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
- 전라남도 목포를 개최지로 선정한 점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음.

2. 동종 또는 유사 행사 분석

- 과거 미식페스티벌이나 미식주간 행사와 차별되어야 하며, ‘향토음식축제’의 새로운 버전으로 단순히 맛있는 음식 맛있는 식당 소개에 그치지 것이 아니라 산업화 기여 박람회를 표방

- 동종 또는 유사 행사인 「남도음식문화 큰잔치」의 주요 특징은 전라남도가 1994년부터 개최하여 2023년에 29회를 치를 정도로 오랜 역사를 보유
 - 「남도음식문화 큰 잔치」를 개최한 경험은 본 국제행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, 행사의 규모와 개념 면에서 서로 구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라남도 목포시 뿐 아니라 전남 전체가 적극적으로 준비작업에 관여할 필요
 - 사실 작년에 개최한 「국제남도음식문화 큰잔치」는 국제행사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기보다는 지역 축제의 성격이 강하고, 산업박람회의 성격도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

Ⅲ. 정책성 분석

가. 행사 개최의 공익성

① 국익과 공익 기여

- 「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」는 대한민국의 미식 가치를 국제사회와 세계인이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임.
 - 본 행사는 글로벌 교류와 R&D 사업 유치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발전계획에서 강조되는 K-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이 될 것임.
 - * 국정과제에 ‘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’가 명시되어 있음.
 - 본 행사를 통해 미식산업 클러스터를 전라남도에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.
- 남도 미식을 본 행사를 통해 재고찰함으로써 한국 미식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.
 - 가장 한국적인 것이 국제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 고유의 미식문화와 음식을 행사를 통해 산업화할 수 있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원의 확보차원에서 의미를 지님.
- 전라남도 고유의 식재료-전통주-식품명인-향토음식 등 한식 자원을 결합한 미식벨트를 형성하는 계기로 활용하여 미식산업과 미식관광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.

〈관련 설문조사 결과〉

- 행사목적의 국익·공익적 기여: 4개 행사목적에 대해 70.7~75.4% 긍정 답변
- 긍정적 효과의 범위: 국제적 34.4%, 전국 30.4%, 전라남도 25.2%,

- 본 행사의 개최는 정부의 다양한 농업/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정책에 도움이

될 것으로 판단

- ‘농업/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(2023~2027)’, ‘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(2023~2027)’, ‘외식산업 진흥기본계획(2022~2026)’, ‘관광개발 기본계획(2022~2031)’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의 실현에 기여

〈관련 설문조사 결과〉

- 정부의 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답변이 다수
 - 농업/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66.1%
 - 제4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72.0%
 - 외식산업진흥기본계획 69.5%
 - 관광개발 기본계획 66.3%

- 전국민 설문조사 결과, 본 행사의 개최 목표인 ▲한식 및 K-푸드의 미식 브랜드 육성 ▲지역경제 발전 및 삶의 질 증대 ▲K-푸드 세계화 및 수출로 지역형 신성장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식관광도시 조성 ▲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기반 강화 및 해외 협력/진출 채널 마련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

〈관련 설문조사 결과〉

- 주요 목표별 기여도(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) : ▲한식 및 K-푸드의 미식 브랜드 육성 73.9% ▲지역경제 발전 및 삶의 질 증대 71.2% ▲K-푸드 세계화 및 수출로 지역형 신성장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식관광도시 조성 75.4% ▲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기반 강화 및 해외 협력/진출 채널 마련 70.7%

- 설문 응답자들은 「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」가 국가경쟁력 강화 및 수출입 증대와 판로개척, 세계미식도시로서의 전라남도 브랜드 강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

〈관련 설문조사 결과〉

- 주요 기대효과별 기여도(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) : ▲미식산업협력단지 조성으로 해외투자 유치 촉진(64.1%) ▲K-푸드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수출입 증대, 판로 개척(73.9%) ▲세계미식도시로서의 전라남도 브랜드 강화(72.2%) ▲음식생태계 보존 국민인식 전환, 사업 관심 제고 및 신산업 창출(66.7%)

② 개최목적 달성 가능성

- 「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」의 프로그램은 미식, 남도음식문화유산, 대한민국 K-푸드를 주요 소재로 삼아 **대한민국 미식을 경험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개발 및 전남 전역에 대한 미식투어 모델을 구축하고자 했으나, 너무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개최목적 달성에 장애가 된 것으로 판단**
 - 미식 주제전시(미식존), 산업 및 비즈니스 전시(산업존), 체험 및 교육(체험존), 미식산업 컨벤션, 미식투어존 및 기타 문화예술프로그램, 미식관광상품, 남도미식포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세계적 수준의 K-미식 브랜드 파워 확립을 시도
- KIEP가 실시한 전국민 설문조사 결과, 다수의 국민은 동 행사의 프로그램이 개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대체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지만, 프로그램별로 긍정적 답변에 편차가 존재
 - * K-미식투어존은 개최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70%이상이 답한 반면에, 학술행사인 남도미식포럼에 대해서는 53%만이 긍정적으로 답변

〈관련 설문조사 결과〉

- 프로그램별 행사 개최목적 달성 가능성에 대한 전국민 인식(긍정 답변 비율)
 - 미식존 62.9%, 산업존 58.4%, 체험존 65.2%, K-미식투어존 71.7%, 문화예술프로그램 57.8%, 미식관광상품 65.8%, 남도미식포럼 53.6%

③ 주무부처 정책과의 연계성

- 「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」의 개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23~2027」, 「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2023~2027」, 「제3차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2022~2026」, 「제4차 수출전략회의 K-Food+ 수출확대 전략」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음.
 - 본 행사가 K-푸드 세계화 및 수출로 지역형 신성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전략과 방향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의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



2023~2027」과 결을 같이함.

- 또한 K-Food를 중심에 두고 전통식품산업, 농산업, 미식관광, 첨단기술 등 식품산업 전반에 다양한 산업 범위를 연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「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2023~2027」과 본 행사는 지향 방향이 동일함.
- 농림축산식품부의 「제3차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2022~2026」은 외식산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바, 본 행사의 목적인 미식관광 활성화와 K-푸드 브랜드의 육성에도 부합함.
-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는 「제4차 수출전략회의 K-Food+ 수출확대 전략」을 통해 한류를 활용하여 K-푸드를 수출 주력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므로, 본 행사의 목적과 일치할 뿐 아니라 본 행사는 전라남도의 수출 가능 농식품의 발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에 'K-푸드 플러스 수출확대 추진 본부'출범으로 K-푸드와 연관산업을 연계한 수출 확대 및 한식을 포함한 한류 콘텐츠 활용 전략 산업으로 정책 계획을 구체화했으며, 이는 본 행사의 목적과 일치

④ 주관기관 중장기정책과의 연계성

- 「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」의 개최는 전라남도의 남도음식 문화 산업화 및 세계화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
 - 전라남도는 2008년 제정한 「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」에 따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남도음식의 육성 및 산업화를 위한 육성계획 원칙을 수립하였고, 남도음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.
 - 또한 2023년을 “세계로 뛰는 전남 대도약” 원년으로 삼고 ①고소득 미래 농업 및 신산업 선도기반 마련 ②안전하고 보존·이용 가능한 바다 환경 조성 ③ 농·어업 경영 안전망 구축 및 공익가치 제고를 통해 “전남 농수축산물을 미래 생명산업으로 육성”하고자 함.
 - 전라남도는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2021~2020,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, 제7차 전남권 관광 개발계획 등을 추진 중에 있음.
- 개최도시인 목포시는 「희망찬 도약! 청년이 찾는 큰 목포」라는 비전하에 핵심 전략으로 “보고 느끼고 맛보는 명품 문화예술도시”를 삼고 세부전략으로 남도의 맛 세계화로 국제 미식도시를 제시하고 있음.
 - 목포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목포시만이 가진 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며, 남도 전역의 미식로드를 운영할 계획임.

나. 행사 계획의 우수성

① 행사계획 실현 가능성

- 전라남도가 지난 30년 동안 '남도음식문화큰잔치'를 개최한 경험을 고려할 때, 무리 없이 행사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, 기존 행사와 달리 30일간의 긴 행사 기간은 음식의 안전 관리 뿐 아니라 행사 프로그램 다양성 면에서 고민이 필요함.
 - 본 행사는 문화, 산업, 글로벌, 환경, 교육 등 너무 많은 분야를 하나의 국제행사 안에서 추진함으로써 차별화에는 성공했지만, 행사 주제인 “남도미식

이 있는 세계 식문화, 지속가능의 가치”를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 박람회에 부합하는 주제 설정이 요구됨.

- 행사 주제는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‘미식’ 개념에는 부합하지만, 산업박람회 주제로서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전문가들로부터 받았으므로 미식산업박람회에 부합하게 ‘산업’으로서의 미식이 부각되는 주제 설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임.
- 본 행사는 국제산업박람회로 정의되므로 해외기업과 바이어의 참여가 중요한데 이들의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안이 부족해보이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
-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는 기본계획도 지적하고 있듯이 관람객이 체류를 유도하는 체류형 프로그램과 함께 실질적으로 머물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
- 행사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사기간 30일 동안 이루어질 **행사 프로그램을**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**재구성할** 필요가 있음.

② 개최시점 적절성/필요성/중복성

- 이 행사는 2025년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개최 예정이며, 농림축산식품부의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23~2027」과 「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2023~2027」이 추진된 지 2년이 경과하는 해로 행사 개최계기에 그 성과를 돌아볼 수 있다는 의미 부여가 가능
-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 트렌드가 살아나고 있으며, 여행 트렌드 가운데 **미식여행이 각광받고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적절함.**
- KIEP 설문조사(‘24. 8.)에서도 2025년에 ‘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’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‘다른 시기 또는 다른 지역에서라도 개최해야 한다’는 응답이 83.8%로 높은 비중을 차지

〈관련 설문조사 결과〉

- 본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을 때, 미식을 주제로 한 다른 국제행사를 2025년이 아닌 다른 해(시기) 또는 다른 지역에서 개최(긍정 답변 비율)
 - 다른 시기에 전라남도에서 개최 (40.7%), 2025년에 다른 지역에서 개최 (23.7%), 다른 시기에 타 지역에서 개최(19.4%)

- 한편 한국 농식품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, 한류의 영향으로 K-푸드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므로 본 행사를 통해 그 성과를 확산하고, 외국 방문객에 한식의 맛을 알릴 수 있으며, 미식을 소재로 한 소규모 행사가 자주 개최되고 있지만, 미식산업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국제행사는 한국에 아직 없음.
- 유사 주제라 볼 수 있는 ‘2013년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’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소재로 하였다는 점에서 본 행사와는 차별화됨.

〈관련 설문조사 결과〉

-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2025년에 전라남도가 개최하는 하는 것에 대해 69.2%가 적절하다고 응답

③ 내·외국인 유치 현실성

- 주관기관은 40개국에서 총 220만 명(외국인 7만 명, 내국인 213만 명)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.
-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유사행사-음식관련 국제행사의 방문객 수(일평균 38,354명)와 개최지(목포시)의 방문편의성 및 주변지역 인구를 고려할 때 **내외국인 유치계획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**
 - 과거 사례의 기록을 바탕으로, 행사 기간이 길수록 일평균 방문객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할 필요
- 유치 계획은 대체로 무난한 것으로 판단되나 **공식 참가자 유치 전략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**

④ 목적 달성을 위한 행사 홍보 계획의 적절성

- 홍보 계획은 5개 기본방향*을 바탕으로 단계별, 부문별, 대상별 홍보 계획을 구상함.
 - * 개최 중요성 국내외 공감대 형성, 남도음식 브랜드 제고, 미래 비전 제시, 참가자 220만 명 유치달성, 협력형 홍보 추진
- 개최시기(2025년)를 고려할 때 단계별 홍보계획은 대체로 지연 혹은 미흡하며 **홍보 프로그램의 구체성과 상징성에 대해 의문임.**
 - 2024년 6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본 행사 개최 인지도가 11.4%에 불과한 점도 고려할 필요

〈관련 설문조사 결과〉

·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2025년에 전라남도가 개최하는 하는 것에 대해 전국민 1,000명 중 11.4%가 '추진 사실을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'라고 응답

⑤ 과거 주관기관 유사행사 경험 반영

- 과거 개최된 국내외 유사 행사를 검토하고 특히 주관기관인 전라남도에서 약 30년간 개최된 **남도음식문화큰잔치의 결과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계획에 반영함.**
 - 국내 지역축제 계승 국제행사(금산세계인삼엑스포, 보령해양머드박람회, 국제농업박람회) 및 국내 음식관련 국제행사(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,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,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, 하동세계차(茶)엑스포)를 분석
 - 해외 유사행사의 경우 대만 미식전, 필리핀 세계 식품전시회, 프랑스 국제 식품전시회, 독일 국제 농식품 산업 박람회, 이탈리아 국제식품 전시회를 분석

⑥ 시설물 활용 계획 합리성

- 본 국제행사는 목포종합경기장(주행사장)과 문화예술회관(부행사장)을 활용해 진행되는 행사로 기존 시설물을 활용할 계획으로 시설물 활용계획은 합리적임.
- 다만 부행사장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, 미식산업박람회라는 행사와의 연관에 의문이 있어 부행사장(주행사장과 5km 거리) 운영 및 투입 예산의 합리성에는 의문임.

다. 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

① 연계성 및 접근성

- 목포버스터미널과 KTX목포역이 각각 주행사장과 약 4km, 5.5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행사장으로 이동시 40분 이상 소요되어 접근성이 좋지는 않음.
- 주행사장(목포종합경기장)과 부행사장(목포문화예술회관)간 거리가 약 10km인데 대중교통 이용 시 한 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계획서에 명시했듯이 셔틀버스 배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무안국제공항이 주행사장과 약 25km 거리에 위치해있으나, 취항노선이 한정적인 관계로 **항공편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참가자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임.**
 - * 무안국제공항 취항노선: 다낭, 장가계, 리장, 연길, 울란바토르, 오르도스 등

〈관련 설문조사 결과〉

- 「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」 개최지인 목포시 방문 편리성 여부에 대한 전국민 대상 설문에서 목포시 방문이 '편리하지 않다'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45.7%로 나타남.
- 「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」 방문 의향이 없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, '이동거리가 멀어서'가 54.4%로 가장 많았고 '숙박이나 교통 등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서'가 31.6% 등 순으로 나타남.

② 과거 유사행사 성과 및 인프라 확보

- 전라남도는 도내 시·군과 협력해 2022년까지 28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음.

〈관련 설문조사 결과〉

- 과거 「남도음식문화큰잔치」 방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, 응답자의 50%가 '훌륭한 행사였다'고 응답했으며, 85.1%가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.
- 「남도음식문화큰잔치」 방문 경험이 있는 응답자 대상 설문 결과, '행사 내용 및 프로그램의 유일성'이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으며 상대적으로 교통의 편리성, 행사 홍보 측면에서는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남.

- 2023년 10월에 전라남도는 이를 확대하여 29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개최했으나, 국제행사라고 일컫기에는 행사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이번 행사 개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.
- 인적·시설 인프라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, 국제행사이고 체류형 관람객이 많은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숙박과 교통편 연계 등 관련 계획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.

〈관련 설문조사 결과〉

- 「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」 참석을 희망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체류기간에 대한 설문 결과, '1박 2일'이 63.9%로 가장 많았고, '2박 3일(18.5%)', '당일 하루(17.3%)' 등 순으로 나타남.

- 음식 관련 박람회를 31일간 야외 운동장에서 개최하기 위해서는 위생, 오페수 처리, 관람객 안전 등과 관련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.

③ 중앙부처-지자체 간 협의

- 전라남도와 목포시간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,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남도 및 목포시 간 충분한 협의를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제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움.

④ 지역주민/기업과의 협의

- 전라남도과 목포시는 ‘미지답포럼,’ 도민과의 대화(’23.11), 시민과의 대화(’24.1) 등을 통해 남도국제미식박람회 개최 필요성 및 효과 등에 대해 **충분히 소통함.**

* ‘미지답포럼’은 23년 4월에 한국일보사 주최, 전라남도 및 목포시 후원으로 개최되었으며, ‘K-푸드의 원류 남도미식, 세계를 흐리다’ 주제로 전문가 강연 및 토론이 이루어짐.

- 행사명이 ‘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’인 만큼 ‘남도미식’ 특색에 맞는 기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나, 현재 『기본계획』 상으로는 어떤 기업들이 주로 참석할지, **협약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.**

⑤ 지역주민의 지지

- KIEP가 실시한 전국민 설문조사(’24.5.22~’24.6.10) 결과, 「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」의 국내 개최에 대한 지지도는 약 80%로 높음.

〈관련 설문조사 결과〉

- 「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」 개최 시 방문 의향
- 가고 싶다(꼭+가능하면): 77.9%

라.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

① 국고지원 불가피성 사유

- 「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」의 공익성과 주관기관 및 주무부처와의 정책적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행사 개최를 위한 국고지원 요구 사유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
- 주관기관은 이 행사가 K-미식브랜드화를 이끌 전초기지로서 전라남도 목포의 역할을 강조했고, 미래 산업으로서 미식의 가치를 강조하며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

- KIEP가 실시한 전국민 설문조사('24. 8.)에서도 응답자의 65.0%가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, 국고지원을 줄이거나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26.8%에 그침.

② 국고지원 수준 적절성

- 지방정부가 주관한 유사 성격의 행사와 비교할 때, 이 행사 개최를 위한 국고 지원 요청 규모(51억 원)는 총사업비 대비 30%의 국비비율로 과거 유사 행사보다 높은 수준으로 다소 과다하다 할 것임.
 - 「2013년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」: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던 산업박람회로, 개최일수 17일, 28개국, 77만 명이 참여했는데, 총사업비 150억 원, 국비 35억 원으로 총사업비 대비 국비 비중이 23% 수준
 - 「2015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」: 충청북도 주관, 개최일 수 24일 간, 26개국 264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총사업비 191억 원, 국비 46억 원으로 총사업비 대비 국비 비중이 24% 수준
 - 「2023년 하동세계차엑스포」: 경상남도 주관, 개최일 수 31일 간, 국내외기업 150개, 135만 명 참여했으며 총사업비 159억 원, 국비 42억 원으로 총사업비 대비 국비 비중이 26% 수준
- 올해 KIEP이 정책성등급조사를 수행한 4건(본 건 제외)의 지방정부 주관 국제행사의 경우 총사업비 대비 국비 비율이 평균 24%라는 점을 고려할 때도 국비신청 비율이 다소 과다함.

3. 사업비 분석

□ 총 169억 원 중 약 13억 9,000만 원 과다계상된 것으로 평가

- I. 주행사장 기반조성의 경우 사업계획금액과 원가검토금액의 차이가 미미한 수준(검토율 100.74%)
- II. 주행사장 시설조성 중 1. 회장, 2. 미식존, 5. K-미식투어존; III. 부행사

장 시설조성; IV. 전시연출비의 경우 검토율 90% 미만으로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

요약 표 2. 사업비 적정성 분석 결과

(단위: 원, %)

항목	계획금액(A)	검토금액(B)	증감(B-A)	검토율(B/A)
T. 총사업비	16,897,000,000	15,505,377,955	-1,391,622,045	91.76%
I. 주행사장 기반조성	336,439,840	338,936,948	2,497,108	100.74%
II. 주행사장 시설조성	1,577,290,000	1,426,663,562	-150,626,438	90.45%
III. 부행사장 시설조성	747,835,000	663,035,736	-84,799,264	88.66%
IV. 전시연출	6,056,600,000	5,398,209,328	-658,390,672	89.13%
V. 행사 및 이벤트 비용	2,272,160,000	2,119,580,519	-152,579,481	93.28%
VI. 홍보 마케팅	2,706,000,000	2,516,095,200	-189,904,800	92.98%
VII. 관리운영	2,321,000,000	2,226,323,240	-94,676,760	95.92%
VIII. 기타비용	880,000,000	816,533,422	-63,466,578	92.79%

자료: 원가전문업체

V. 종합평가 및 결론

1. 종합평점 도출

□ 본 행사의 정책성은 준수한 수준이며 행사개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있는 것으로 평가

- 「국제행사관리지침」에 명시된 평가기준을 토대로 전문가 8인에 의한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, 「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」의 정책성에 대한 종합평점은 67.48점(100점 만점)으로 도출

- 「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」는 행사의 공익성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에,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과 행사계획의 우수성 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.
- 행사계획의 수정과 함께 국고지원 요구 수준을 유사 행사를 참고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.

요약 표 3. AHP 평가자 8인의 평가 결과

평가기준	배점	표준점수	종합평점
행사개최의 공익성	30	73.83	67.48
행사계획의 우수성	30	63.50	
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	20	68.90	
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	20	62.55	

2. 결론 및 정책 제언

□ 다만, 본 행사의 성과 제고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제언

- 「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」를 국제적인 산업박람회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행사의 취지와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, 국제성 확보를 위해 해외로부터의 참여 및 유치 확대 전략과 성과 확산 전략이 필요함.
 - 전라남도의 미식산업 현황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고, 국제박람회로서 해외 기업과 업체에 대한 유치 전략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이를 철저히 보완할 필요
 - 행사의 성과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미식 산업 발전에 기여 및 환류될 수 있는 구체적 채널을 마련해야 할 것임.
- 행사 프로그램 상 주행사장을 4대 영역(zone)과 12개 전시장으로 구성하고 1달 간 운영할 예정이지만,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나의 행사를 통해 구현하다보니 개최목적이 모호해질 우려가 존재함.
 - 본 행사가 산업박람회라는 점을 고려하여, 산업존에 수출입비즈니스 상담, B2B라운지, 푸드테크 관련 컨설팅, 기업 및 지역 상품 판매 공간 구성을 기획에 반영하고 구체적 성과도출 계획을 마련해야 지역경제 발전 목적 달성이 가능함.
 - 주행사장의 프로그램과 보조 행사장의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야만 두 행사장이 K-푸드 미식브랜드 육성이라는 본 행사 목적을 달

성할 수 있을 것임.

- 산업박람회임에도 국내외 기업 유치계획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, 기업유치 전담 조직이나 예산 등을 마련하고, 전라남도 소재 미식관련 기업 리스트를 구축할 필요
 - 특히 지역기업 및 업체들이 본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함.
 - 체험부스의 경우 특정업체에 일관 관리를 위탁하기보다는 전남도청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함.
- 미식산업박람회를 1달간 야외 운동장에서 개최하려면 위생문제, 관람객 안전, 경제성 등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
 - 식품 저장 냉장고 구비 및 상하수도 구비가 요구되는 데 예산 상 명확하지 않음.
 - 숙박과 교통편 연계 등 인적·시설 인프라 보강할 필요
- 기간이 길 경우 참여 업체에서 인력 및 자본 투입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참가를 꺼릴 수도 있으며, 기간이 분산되어 전문가는 전문가대로, 기업은 기업대로 네트워킹의 기회가 줄어들어 매력도가 낮아질 수 있음.
- 경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MZ 세대들의 소비성향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.
 - 따라서 현재 계획하는 1개월의 행사 기간은 현실적으로 긴 기간이며 한국의 목포까지 외국인과 내국인이 찾아갈 명확한 이유(현지에서만 경험 가능한 미식 투어, 부대행사, 콘텐츠 등)를 만들어야 함.
 - 젊은 세대들은 고품격 서비스 가치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고,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선호하는데 전라남도에서 젊은이들의 이 같은 감성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성공적인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.

- 한식도 트렌디한 문화, 한식을 둘러싼 식문화가 유발하는 분위기, 생활 습관 등 다양한 경험 소비를 확대하는 계기로 남도미식산업박람회가 기능하기를 희망함.
- 다양한 식재료, 발효 기반, 사찰음식 등 한식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이색적인 경험 소비로 이어지도록 공간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임.